

“정보와 경험 나누며 제 색깔 지킨다”

잡지발간 병행하는 출판사 늘어…제작과 유통 공유는 장점

단행본 출판사에서 잡지발간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잡지를 먼저 시작하다가 단행본 출판에 뛰어들었거나 단행본 출판으로 자리를 잡은 다음 잡지를 창간해서, 같은 회사에서 단행본과 잡지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는 이제 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예지나 전문 학술지, 사보 및 사외보, 학술지 등을 제외하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잡지를 내고 있는 출판사들은 출판협회에 등록된 출판사들 중 10여군데에 이른다. 이들 출판사가 함께 운영하는 잡지들은 단행본 출판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할 수 있어 서로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출판사가 관계하는 잡지들은 전반적인 잡지문화가 광고를 바탕으로 한 오락적인 요소에 치우쳐 있는데 반해 나름대로의 색깔과 내용성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디자인 하우스, 응진, 계몽사 등 대표적

단행본 출판과 잡지를 병행하는 대표적인 출판사는 디자인하우스이다. 디자인 하우스는 “디자인을 즐기는 분위기를 창출한다”는 취지아래 처음엔 《월간 디자인》을 내던 잡지사로 시작 87년 9월 《행복이 가득한 집》을 창간하면서 단행본을 본격적으로 출간한 경우이다. 이후 전문적인 디자인 감각을 살린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등 베스트셀러를 내면서 단행본에서도 성공을 거둔 디자인 하우스는 《월간 공예》도 함께 발간하고 있다.

디자인하우스의 박수호 이사는 “단행본과 잡지에서 일관된 감각을 고집한 것이 성공을 거두게 된 중요한 원인이며 고유의 색깔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0년대 후반 학습지로 단행본 출판을 시작한 응진도 90년대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잡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92년 아동용 교양과학 전문잡지인 《자연의 친구 까치》가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어 93년에는 《마이웨이》를 창간했고 육아 잡지인 《양광》 한국판과 여행전문잡지인 《월드트레블》 한국판도 함께 내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학습잡지의 창간을 서두르고 있는 한편 윤석규회장이 “연차적으로 전문화시대를 선도할 전문 잡



단행본 출판사에서 펴내는 잡지들.

단행본 출판사에서 잡지를 발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출판사의 잡지는 전반적인 잡지문화가 광고를 바탕으로 한 오락성에 치우쳐 있는데 반해 나름대로의 색깔과 내용성을 지켜나간다는 평이다. 단행본과 잡지 모두 활자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 장점도 있다.

지 20여종을 계속 창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잡지업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응진출판 잡지팀의 이광표 국장은 “잡지라는 매체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단행본 출판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다”고 설명한다. 잡지가 출판사의 이미지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물론 슬라이드를 비롯한 자료들을 단행본 쪽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이다.

아동도서출판사로 자리를 잡은 계몽사는 자사의 노하우와 이미지를 살려 85년 《월간 과학》을 창간, 89년 《월간 NEWTON》으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 발간하고 있으며 국민서관은 84년 부터 《월간 자연과 어린이》를 내고 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월간 교양지 《샘터》를 창간한 샘터사도 72년 출판등록을 하고 단행본 출판을 시작, 잡지와 단행본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샘터사는 70년대 중반 《엄마랑 아기랑》을 창간, 지금까지 내고 있으며 특히 《샘터》는 폭넓은 독자층을 바탕으로 다른 잡지들보다 월등한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다.

어학전문출판사인 다락원에서는 77년 《낯시춘추》를 인수한 것을 비롯 현지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어저널》 《액티브잉글리시》 《CNN 라이브》 등 외국어 관련잡지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단행본 출판사로 시작한 열린세상에서는 최근 남십지 《HIM》을 창간했다. 또한 동아출판사에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국판을, 지경사에서는 《디즈니》 한국판을 발간하고 있으며 행림출판사에서는 청소년 잡지 《주니어》를 최근까지 운영해 온 바 있다.

이밖에도 《책과 인생》(범우사), 《과피루스》(민우사), 《창비문화》(창작과비평) 등 일부 유력 단행본 출판사들이 책잡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김영사에서 비슷한 종류의 격월간지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 책과 잡지

의 경계선에서 독자들에게 읽고 있는 이들 잡지는 단행본과 잡지가 가지고 있는 활자문화의 밀접성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이다.

단행본과 잡지는 같은 활자매체

단행본출판과 잡지를 병행해 온 예는 해방 이후부터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원사의 경우이다. 학원사는 《학원》 《진학》 《주부생활》 등을 내면서 단행본 뿐만 아니라 잡지에서도 명성을 얻었다. 이후 이 같은 경우는 6~70년대를 거치면서 종종 있어왔고 출판사들과 잡지사들이 사업의 다각화를 피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부터는 더욱 늘어났다.

이런 현상은 단행본과 잡지 모두 활자를 매개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호환성이 있는 데다 홍보상의 잇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컴퓨터 등 관련기기와 자료의 공동사용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단행본과 잡지는 제작과 유통의 과정이 비슷한 점이 많아 해당 거래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현상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허연 기자